



제목	The Shahnameh
발행언어	페르시아어
발행처	Tehrani Books
발행일	2009
저자	Ferdowsi
출판국가	이란
페이지수	1551
ISBN 또는 ISSN	ASIN: B004D56ZXO

**내용 요약**

아힘 아부 알-카셈 맨 수르 페르도시는 ‘왕의 책’으로 번역되는 『샤나메』를 썼다. 『샤나메』는 서기 977년부터 1010년까지 이란 시인 페르도시가 페르시아어로 쓴 방대한 서사시이다. 페르시아의 창세시점에서부터 7세기 이슬람이 이란을 정복할 때까지 이란의 신화와 역사를 집대성해 놓았다.

『샤나메』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도 물론 크지만 순수한 페르시아어로 쓰였기 때문에 아랍어의 영향권 하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던 페르시아어를 되살리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했다. 페르시아인들의 자부심인 『샤나메』에는 이란의 역사는 물론, 문화적 가치와 고대의 신앙인 조로아스터 교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페르도시는 고명딸의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30년 이상이 걸렸는데, 이 작품의 집필 관련 제반 사항들은 7세기 아랍의 페르시아 정복 후 페르시아 문화 전통의 부흥을 주도한 9세기 호라산의 사만 제국 공주에게 위임되었다.

이 작품의 의의는 모든 학문적인 활동이 아랍어로 이루어지고 있던 때에 페르도시가 『샤나메』를 페르시아어로 썼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1010년 이 작품을 완성하고 난 후 페르도시는 페르시아어가 자신의 작품에서 부활했다고 말했는데, 『샤나메』를 조금이라도 읽어 본 페르시아인들은 그의 말에 금방 수긍한다.